

새만금 송전탑 건설 사업 갈등 재점화

주한미군 대안노선 수용 불가

주민들 공사 재개 반대

실마리 못찾고 원점으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새만금 송전선로·철탑 건설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주민들이 요구한 대안노선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리자 주민들이 송전로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26일 새만금송전철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주한미군의 답변은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 믿을 수 없다”며 “검증을 포기한 미군의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철탑의 각도를 재는 기준면이 변경됐고 해발고도와 철탑까지의 반사각 기준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미군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애초 공동대책위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의 중재로 ‘인근 공군비행장을 운영하는 주한미군이 송전탑 높이를 39.4m까지 낮추는 데 동의하면 한전은 우회노선



새만금송전철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5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철탑 건설 계획 불가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건설한다’는 조정안을 도출했다. 새만금 송전선로는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해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30.6km)에 345kV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군산시와 한국전력은 2008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서 지난해 8월까지 임파·대야·회현면 14.3km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설치했지만, 나머지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 구간 송전탑 46기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012년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건강권과 재산권을 내세운 주민들은 농

경지를 우회하는 대안노선(만경장 방수제~남북2축도로)을 주장하며 한전 쪽 기존 노선을 반대했다.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하자 한전은 추가 비용 부담을 내세우며 거부해 마찰을 빚다가 작년 말 권익위의 중재로 극적으로 조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주한미군 측이 최근 대안노선을 거부하자 주민들은 사업 반대 견해를 분명히 표명했다.

권익위는 “주한미군의 최종 회신 내용이 미국 공군 항행표준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여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여러 차례 설명과 검증 과정을 거쳐 소명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미국의 답변이 맞는지 정확히 공개검증을 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 일을 계기로 한전이 공사를 밀어붙인다면 매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한전과 대책위는 대화를 약속하는 등 협상을 이어나갈 뜻을 밝혀 앞으로 움직임이 주목된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국가예산 확보 시동

2016년도 신규사업 보고회

순창군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 빠른 행보로 2016년 신규 국가예산사업 5000억원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순창군은 26일 “지난 24일 영상회의실에서 이강오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추진상황 보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각 실과에서 발굴한 2016년 국가예산사업 52건 총사업비 3900억원에 대한 발굴상황과 이후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52건 사업 중 총사업비 190억원인 만성질환 치유·체형개선 건립사업은 순창군이 건강장수시대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부담 등 국가적 문제를 자치단체 성장동력 산업으로 연결시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섬진강 수상레저 활성화 및 육성사업, 자연순환 과학관 건립사업, 마을하수도 통합사업, 동물복지 농장 조성사업 등이 순창군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역점을 두고 발굴됐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권 신 공항부지, 새만금지구로 가나

유치 희망 지자체간 갈등 예상

전북도가 최근 전북권 공항 입지 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공항후보지가 새만금지구 내로 사실상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간 전북권공항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이었던 현 김제공항 조성 예정 부지는 사실상 후보지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항공대학에 1년 일정으로 전북권공항 항공 수요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에 중간 보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전북권공항 조성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듯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25일 “용역결과를 지켜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새만금지구 내에 공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며 “특히 군산보다는 김제 화포지구가 여러 시·군에서 접근성이 뛰어나 입지 여건에서 우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북권공항 조성후보지 선정을 놓고 군



전북권공항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새만금지구의 방조제 전경. <광주일보 자료>

이 부지사는 “새만금지구 어느 곳에 공항을 유치하더라도 미군 비행장의 항공구역과 겹치기 때문에 미군 측과의 협의는 불가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북권공항 조성후보지 선정을 놓고 군

산시와 김제시 등 일부 시·군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나온 전북도의 공식입장이어서 앞으로 이해 시·군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연합뉴스

전남 소식

전남복지재단 여수서 역량강화 워크숍

내달 2~3일 200명 참가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 기획

전남복지재단(이사장 노진영)은 오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여수 유캐슬호텔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와 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보고회 및 제공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남도 시·군 공무원, 전남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복지재단이 제공기관 종사자 자긍심 고취와 자아실현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워크숍에서는 담당업무 유공 공무원과 제공인력 등에 대한 도지사표창을 수

여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 및 우수사례발표, 분임토의 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홍섭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발전방안’과 전남대학교 국악과 전인삼 교수의 ‘전남의 관소리와 건강 100세’에 대한 특강도 함께 이어질 예정이다.

전남복지재단 관계자는 “전남도민에게 맞는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민·관 협력 강화와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전적·예방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공기관 및 인력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직무향상 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남군 땅끝서각전시회·가훈씨주기 행사

29일까지 해남문화원 1층

서각·서예 등 27점 전시

해남군은 27일부터 29일까지 해남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제10회 땅끝서각전시회 및 가훈씨주기’ 행사를 연다.

해남군이 후원하고 한국서각협회 해남지부(지부장 이상삼)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서각협회 회원들의 서각 작품 20점과 서예작품 7점 등 27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가훈씨주기 행사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색채와 화화적인 멋을

보여주는 현대서각과 독창적 예술성이 있는 전통 서각을 통해 군민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시회에 많이 오셔서 서각의 매력에 푹 빠지는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서각협회는 지난 1999년 해남서예·서각연구회로 태동해 서각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대회에서 입상을 차지하며 해남 서각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는 해남지부 창립전을 시작으로 매년 전시회를 갖고 군민들에게 서각을 알리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곡성군 충무훈련 최우수기관 선정

유류시설 화재진압·구조 등

위기 수습 호평...도지사 표창

곡성군은 26일 “지난달 시행한 충무훈련을 모범적으로 수행, 전라남도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올해 충무훈련으로 한국석유공사 곡성지사에서 9개 관계기관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류 저장시설 파

괴에 따른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실제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 훈련은 위기사태 발생 시 관계기관의 사태수습 능력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재난이나 국가 위기 발생 시 지역적 차원에서 수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고 도상 및 실전훈련을 통해 점검·보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4억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대지 및 전 1,733㎡ 슬라브주택 교통편리, 매9천만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6,600㎡ 주택 2차선 도로변 및 4차선 국도점, 매10억
-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담 6,605㎡ 도로양호, 전으로 사용가능, 매1억 4천만
- ▶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지목상 임야) 20,495㎡ 영농조건 양호, 임대수익 양호, 투자유망, 매3억 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 7,547㎡, 2차선 도로변, 매3억 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
- ▶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
-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대봉김나무 과수원, 고소득 가능, 매4억
- ▶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전 6,600㎡ 4차선 도로변, 계획 관리지역, 매2억 9천만
-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투자유망, 매17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 333-1150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감정원 감정가 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 매대가격 상담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연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68-5151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담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3억 6천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